쎄 보이려 내는 나 놈 목소리

(예레미야 11:1~23)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쎄 보이려 내는 나 놈 목소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쎄 보이려 내는 나 놈 목소리'
제목의 '쎄'라는 말은 본래 표준어로는 '세'가 맞는데 실감하기 좋도록 강조해 보았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그 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설경구 김남주 강동원 씨 등이 등장하였는데 강동원 씨가 유괴범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1991년 1월에 압구정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형호 어린이가 압구정동에서 유괴를 당한 후에 15년 간 무려 10만 여명에 이르는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 1월에 공소시효가 끝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44일 동안 1억 원을 달라는 전화를 걸어서 부모를 닦달했는데 이것이 영화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이를 납치한 지능적인 유괴범은 경찰의 수사망을 조롱하듯이 빠져나갑니다. 1억 원을 내놓으라며 접선 장소를 지시하는데 이것이 유괴범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유괴범의 말투가 상당히 교양이 있고 차분하며 냉정합니다. 이 목소리가 바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 놈 목소리'입니다. 44일 간 절박한 부모의 심정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갑니다. 아빠는 아들을 찾기 위해 스스로 접선 장소를 제안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아들은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괴가 일어납니다. 부모에게서 어린아이를 유괴하듯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유괴범을 잡지 못하면 나는 죽음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하는 범인의 목소리는 '그 놈 목소리'가 아니라 '나 놈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7~8절을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깼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4~5절에 기록된 대로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선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지 못하게 하는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놈 목소리'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나'라는 놈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놈 목소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해서 죽게 만드는 유괴범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소리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이어폰은 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에 꽂으면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마음에 울리는 동안에는 외부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 놈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유괴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철학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결혼을 할까? 사람은 어떻게 땅을 걸을까?'라는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사람은 왜 마음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회사 대표인 나히토 요시히토의 "세 보이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기간에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61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센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장인물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장인물을 258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했더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 '신뢰가 간다, 교양 있어 보인다, 정직하게 보인다, 지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6번 째 기술은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기'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상대방이 말 할 때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대화의 기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반대로 끼어들라고 합니다. 우선 끼어들어서 내가 세게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신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곧 세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외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에덴의 삶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세보이고 싶어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세보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처럼 나 놈 목소리가 없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놈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지만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세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깨지고 맙니다. 인간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궁궐에는 임금님과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야기하는 자는 임금님입니다. 신하는 오직 임금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중역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회장님입니다. 다른 중역들은 회장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세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렇게 세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언제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삭에 대해 목소리를 내십니다. 심지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눈앞에 두고도 이삭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써 돈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돈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선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센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선민들은 자신의 목소리 내기를 계속하였고,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었다면 복지가 유지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으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시내산 사건은 선민과 하나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결혼식장에 어떻게 등장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18~19절을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입장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

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들 앞에서 센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생각이 없는 말은 단순한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판단과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며 우레 소리가 울렸습니다. 절대로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등장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청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선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까요? 본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십계명과 율법 중에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나 놈 목소리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끊어버렸고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내 목소리 내는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괴해서 결국 죽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반드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애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입시생들은 수능시험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고 있으면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기게 된 세상에 대해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직장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담았다면 번제단이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번제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돈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한 판단과 생각을 하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돈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는 이것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들려옵니다. '10년 뒤에 10억을 벌수 있다고 믿어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교가 전하고자 하는 계명과 율법 등의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 놈 목소리에 부합하는 내용만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알’은 곧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어졌던 우상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곧 부자되고 부흥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동안 마음에서 나 놈 목소리는 커집니다. 마음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담은 마음을 죽일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의 번제단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을 담았던 나 놈 목소리를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니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놈 목소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자연인(自然人)은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은 마음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을 담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원수일 경우에도 근본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있는 것이 좋아서 담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라면 없는 것이 좋아서 담게 되는 것이 원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서 마음에 담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가족이라도 마음에 담고 나면 그에 대한 나 놈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될 수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족을 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나의 마음을 스스로 유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안에는 나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없으면 좋은 대상입니다. 이 원수를 마음에 담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있으면 좋은 것들은 미워하라 하셨고, 없음으로 좋은 것들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

떻게든 나 놈 목소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것처럼 나 놈 목소리가 마음에 울릴 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8절에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라를 마음에 담습니다.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마음에 담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습니다. 자연스럽게 담기 때문에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에 반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인간만이 예외입니다.
자연인이라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오직 인간만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좋아하여 마음에 담게 되고 내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대한민국 사람은 나라를 마음에 담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 삼아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진대, 인간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담은 부모의 마음이 문제임을 교회는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문제임을 일깨워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기에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연스럽게 여긴다면 큰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마음에 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업을 담자 나 놈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기도의 무의미함이 단호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담은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는 장면을 상상해보

세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은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 생활화로 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담으면 나 놈 목소리가 나와서 나를 죽음으로 유괴해갑니다. 십자가에서 나 놈 목소리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나는 놈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당사자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만 담겨야 할 마음에 세상을 담고 내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없이 나 놈 목소리를 죽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는 명료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을 열 때마다 손과 발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열매로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